

論 叢

價格水準의 安定과

그 問題點

서울 商科大学 教授 車 軫 權

< 問題의 所在 >

財政支出 및 一般金融部門의 與信量을 抑制하고 重要物資에 대한 價格統制를 實施하고 있는 艱難적. 財政. 金融政策下에서도 物價는 좀처럼 그 上昇 추세가 鈍化되지 않고 繼續 上昇一路에 노여 있는 것이 現在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經濟的 現實이다.

年初부터 政府는 通貨價値의 安定과 物價의 調節을 爲하여 現年度 年末 通貨量을 385 億원 線에서 머물게 하고 5 個年計劃 第 2 次年度의 財政投融資計劃을 大幅 修正하였으며 아울러 年內의 一般金融部門의 與信增加限度額을 22 億원으로 制限 策定하는 一連의 緊縮的 措置를 策定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通貨量은 年初의 387 億원 水準에서 6 月末에는 355 億원으로 壓縮되었으나 全國都売物價指數는 年初 226.7 (1955年 = 100) 에서 6 月末에는 226.8 로 上昇하였고 凶作으로 因한 政府米放出과 市中銀行의 貯蓄性預金의 增加로 因하여 繼續 通貨量이 回收되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銀行의 發表에 依하면 지난 9 月 14 日 現在 全國都売物價指數는 315.2 에 達하였다. 이러한 事實은 一連의 緊縮的 財政金融政策과 價格統制가 物價調節과 通貨價値安定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如實히 보여 주고 있는 事實이라 하겠다. 勿論 그러한 事態를 이르게 된 直接的原因이 凶作 및 外換不足으로 因한 供給物資의 不足

에 있었다는 것도 否認할수 없거니와 또 그러한 諸般 緊縮的 措置 或은 價格統制로 因하여 價格上昇 趨勢가 相當히 緩和되 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財政支出의 抑制 金融部門의 與信統制 或은 價格統制가 通貨의 價值 安定과 物 價調節을 爲한 萬能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例라고 하겠다.

物價의 急激한 騰貴나 또는 漸次的인 上昇이 主로 超過需要 에 起因한다면 財政支出의 抑制 또는 金融部門의 與信規則 課稅에 依한 購買力吸收 或은 價格統制와 같은 短期的 直接統 制方式은 大우 有效한 인플레이策이 될수도 있다. 그러한 措 置는 既存購買力을 吸收하는데 끝이지 않고 民間部門의 經濟活 動을 要望하는 方向으로 誘導하는데에도 기여할수 있다. 그러 나 價格上昇의 原因이 超過需要라기 보다 供給物資의 不足에 있다면 主要한 인플레이策은 그러한 險路를 打開하는데에 集中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인플레이가 賃金水準의 上昇趨勢에 그 原因이 있다면 그러한 賃金水準引上要求를 막아야 할것이다. 万 一 價格上昇이 既存財貨에 대한 超過需要에 起因하는 것이 아 니고 生産者의 價格引上 壓力에 起因한다면 通貨量의 規制 或은 緊縮的 財政 金融政策은 超過需要를 除去할지 모르지만 生 産者의 價格引上要求를 除去할수는 없다. 同時에 그러한 措置 는 購買力을 削減함으로써 總需要의 減少를 誘發하고 利用可能 資源의 效率的使用을 抑制하는 디프레의 作用을 이끈다. 그 結果로 인플레이와 디프레가 併存하는 事態가 發生하게 된다. 即 生産者의 價格引上壓力을 排除하지 못하는 反面에 購買力減 少로 因하여 生産活動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態下에

서는 通貨費의 調節이나 財政支出 및 金融部門의 與信費規制
만으로서 價格上昇을 抑制할수는 없다.

<價格水準安定政策의 得失>

價格水準의 安定이라는 問題는 長期的 經濟政策의 目標과 關
聯을 갖고 있다. 一般的으로 既存 財貨에 대한 超過需要가
存在하지 않는 限 또는 賃金率의 上昇이 生産性的 增加를 上
廻하지 않는 限 物價上昇이라는 經濟的不調整은 이어나지 않으
며 그러한 條件下에서는 價格水準의 安定과 完全雇傭의 達成이
라는 政策目標은 相互矛盾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過去의 經驗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經濟의 成長에는
價格水準의 上昇이 뒤 따르기 마련이고 또 供給物資의 不足과
같은 生産上的 隘路에는 價格上昇現象이 隨伴한다. 또 異論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急激한 價格水準의 上昇이던 緩慢한
價格水準의 上昇이던 間에 그러한 變化는 經濟的不調整을 意味
하며 長期的으로는 經濟의 進步를 威脅하게 된다는 것도 指摘
되고 있다. 인플레이의 害惡을 새삼스럽게 說明할 必要는 없는
것이지만 貨幣價值의 急激한 低落은 經濟의 機能을 마비시킬뿐
만이 아니라 通貨에 對한 信賴를 破壞하고 經濟를 崩壞시키는
事態에 까지 發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그리하여 價格水準의 安定은 長期的 經濟政策의 主要한 基本的
目標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財政支出의 抑制 또는 金融部門 與信費의 規制等の
緊縮政策에 依한 價格安定政策은 經濟의 成長과 擴張에 적지않
는 打擊을 준다는 것이 指摘되고 있다. 인플레이의 壓力을 經濟

의 擴張的 動的現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壓力을 除去하기 爲한 制動的措置는 發展을 阻害할 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產出量增加率 이 價格上昇率 보다 빠르다면 價格上昇을 두려워할 必要가 없다는 見解가 主張되고 있다. 이러한 見解 밑에서는 價格水準의 安定보다 經濟의 成長이 더 重要한 政策的課題가 되며 價格上昇이 經濟의 成長을 크게 阻害하지 않는 限 完全雇傭을 達成하기 爲한 擴張的壓力을 除去할 必要가 없고 短期的인 價格水準安定을 爲한 非伸縮的 安定政策은 縮小生産의 原因이 되며 經濟의 進步를 阻害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見解는 價格上昇이 產出量增加보다 빠르지 않다는 留保條件下에서 만 承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長期的으로 보면 年間 2%의 價格上昇이라 할지라도 每35年 마다 價格은 2倍로 上昇하고 萬一年間 3%의 價格上昇은 每 23年 마다 價格은 2倍가 된다는 簡單한 事實에서 緩慢한 價格上昇이라 할지라도 그 弊害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더욱이 暴發的인 인프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年間 貨幣價值가 20~30% 以上이 下落하는 경우에는 經濟的不調整만이 아니라 通貨에 對한 信賴度를 低下시키고 社會的不安을 造成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明白한 事實이다.

그 反面에 非伸縮的인 인프레對策으로 因하여 購買力이 急激히 削減하고 縮小生産이 行하여지는 結果로 價格 및 雇傭에 硬直性이 導入 되면 價格水準의 安定은 成長의 犧牲 밑에서 이룩되고 經濟는 인프레壓力下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흔히指摘되고 있는 것과 같이 安定基調위에서 成長을 目標로 하는 經濟政策은 價格安定政策을 第一目標로 設定하기는 하되 價格水準의 安定이 生産 및 雇傭을 萎縮시키지 않도록 配慮하는 操

心성이 뒤따라야 한다. 價格水準의 安定이란 短期的目標은 아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法定價格의 固守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지 政策의 基準으로 設定한 安定通貨水準이나 그밖의 安定計劃을 그 때로 施行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主要한 課題는 價格水準을 安定시키기 爲하여 市場價格機構에 硬直性을 導入하는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貨幣價値의 安定을 圖謀하기 爲하여 競爭狀態를 改善하고 또 資源의 可動性을 높이고 價格變化의 伸縮性을 높일 수 있는 環境을 마련하는데에 있다.

그러한 點에서 인플레이의 性格을 正確히 究明하고 그에 適合한 財政金融政策 或은 直接統制를 適切히 利用할 것이 要求되고 있다.

緊縮的財政·金融政策의 問題點

一般的으로 인플레이現象은 超過需要로 因하여 發生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價格水準의 安定은 緊縮的 財政·金融政策에 依하여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普通이다. 既存財貨의 供給에 對한 過剩需要로 因하여 價格上昇이 이리한다면 購買力을 削減할 수 있는 緊縮的 財政·金融政策은 總支出를 削減하고 既存財貨의 供給과 需要間의 不均衡을 是正할 수가 있다. 一般的으로 購買力減少를 爲해서는 政策遂行上 伸縮性을 갖게 한다는 點에서 財政的措置보다 金融的措置가 더욱 效率的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民間購買力을 規制는 데에 있어서는 課稅措置가 더욱 直接的 效能을 갖고 있다. 勿論 總支出를 削減하기 爲해서는 財政支出의 削減 課稅 金融部門의 與信

統制 및 그 밖의 金融的措置 例컨데 利率의 引上等이 併行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緊縮的 財政·金融措置는 過剩된 需要만이 아니라 過剩되지 않는 需要까지도 減少시킨다。 그 結果로 潛在的 生産要素의 完全한 그리고 最適利用의 機會를 排除한다。 卽 緊縮政策은 經濟的 進步, 社會的正義 및 價格安定이라는 諸目標間의 選擇을 不許하며 過剩購買力을 削減함으로써 그 目的을 達成할 수가 있으나 經濟的 進步 或은 社會的正義 (分配狀態)를 侵害하는 結果 長期的으로는 價格安定이라는 目標을 達成하는데 있어서도 阻害的作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假令 인플레이의 壓力을 除去하기 爲하여 歲出豫算을 削減한다고 생각하여 보자 實際에는 歲出豫算의 規模를 削減한다는 것은 그리 容易한 問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떠한 經費를 削減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主로 國家가 追求하는 政策目標에 依存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一般的 經費의 削減은 公共行政의 規模 및 能率에 參關할 수 없고 國防費의 削減은 防衛能力을 低下시킬지도 모른다。 短期的으로 政治的 社會的 反應이 크지 않는 公共事業 이를테면 長期的 投資의 削減은 結果적으로 經濟的 進步에 影響을 준다。 卽 公共投資經費의 削減은 現段階에 있어서 豫算의 均衡과 價格安定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國民經濟의 發展速度를 느리게 할 것이다。 또 民間購買力을 吸收하기 爲한 課稅를 생각하여 보자 購買力을 規制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效果的인 課稅方法은 所得稅나 法人稅의 稅率을 引上하는 것보다 消費稅 및 売上稅의 稅率을 引上하는 方法이다。 그러한 租稅가 所得에 對하여 逆進的作用을 한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

이고 또 그러한 租稅는 財貨의 價格을 높이고 消費者負擔을 增加시키며 價格의 累積的 上昇過程을 通하여 流通秩序를 攪亂할지도 모른다。 卽 그러한 租稅는 原則적으로 分配上의 正義와 一致하는 租稅는 아니다。 以上과 같은 效果는 緊縮的金融政策의 作用에서도 찾아볼수가 있다。 利率引上의 打撃을 받은 것은 大企業은 아니고 小企業이며 與信量의 制限에 따라 新規企業의 發達은 크게 抑制될수도 있다。

以上과 같은 諸現象은 모두 디프레의 現象과 關聯을 갖고 있다。 卽 長期的公共投資計劃의 縮小 企業擴張에 對한 抑壓 消費者負擔의 增加等은 縮小生産의 直接的原因이 된다。

다음 緊縮政策이 價格安定에 주는 效果에 對해서도 크게 期待할수는 없다。 說使 購買力의 削減에 依하여 短期的 價格水準의 安定이 이룩되었다 하더라도 雇傭 및 生産을 위축시키는 디프레의作用으로 因하여 오히려 價格上昇을 刺戟할수도 있다。 왜냐하면 利率의 引上은 生産費用을 增加시키고 需要不足으로 因하여 潛在的生産要素를 完全히 利用하지 못하는 狀態下에서 特定 要素費用은 增加할수도 있는 故로 生産者는 販路를 求하지 못하는 境遇에도 財貨의 價格을 높이게 될수도 있는 것이다

萬一 緊縮政策이 以上과 같은 經濟의 不調整을 加重시키고 그 結果로 디프레의壓力이 加重된다면 投資 및 投資意欲의 低下로 因하여 不景氣는 더욱 惡化될 境遇도 想像할수가 있다 勿論 그러한 結果가 緊縮政策의 唯一한 屬性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緊縮政策에는 그러한 要望되지 않는 作用이 뒤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인플레이와 生産者의 責任

一般的으로 인플레이現象은 價格上昇과 超過需要라는 두가지 相異한 概念에 依하여 定義되고 있다. 그리하여 超過需要를 除去하면 價格安定은 이룩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價格引上과 超過需要는 어느때나 關聯시킬수 있는 概念은 아니다. 賃金引上은 生産費用을 높이고 價格上昇을 유발할수도 있고 또 生産者에 依하여 價格引上이 유발될수도 있다. 그리하여 需要에 対応하는 充分한 財貨의 供給이 있을때에도 生産者의 價格引上壓力으로 因하여 物價는 上昇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種類의 인플레이는 디플레이的環境下에서도 이러나게 된다. 即 購買力의 過剩狀態를 吸收 減少시키기 爲한 緊縮政策은 過剩한 需要를 減少시키지만 生産者의 價格引上壓力까지를 排除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디플레이現象과 인플레이現象이 共存하는 事態가 이러날수도 있다. 그러한 生産者의 價格引上要求로 因한 인플레이는 賃金引上に 直接的原因이 있다고 主張되기도 하며 費用增加로 因한 價格上昇은 生産者의 責任은 아니라고 변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生産者의 價格引上要求가 반드시 그러한 費用增加에 起因하는 것은 아니다. 生産者는 利潤을 높이기 爲하여 價格을 높일수도 있고 그 結果로 賃금이 引上될 境遇도 있는 것이다. 흔히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는 生産者 및 勞動者間의 價格引上의 責任問題는 事實上 無意味한 것이다. 왜냐하면 兩者는 모두 過剩購買力의 有無에 關係없이 價格引上을 誘發할수 있기 때문이다. 元來 Cost Inflation 또는 Cost-Wage Inflation 은 一面에서는 超過需要가 存在할 때에 이러하고 超過需要로 因한 價格上昇을 強化하는 現象

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卽 超過需要가 存在할 때에는 完成品만이 아니라 要素價格도 上昇하며 그러한 要素價格의 上昇은 生産費用을 높이고 價格引上을 促進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超過需要가 存在하지 않을 境遇에도 通貨量의 回収, 與信力의 規制 또는 租稅負擔의 增加, 利率의 上昇等으로 因하여 生産者는 財貨의 販賣價格을 引上할수도 있고 또 單純히 利潤을 增加시키기 爲하여 價格을 引上할수도 있다. 그밖에 勞組의 勢力이 強化되면 超過需要가 存在하지 않는 時期에도 亦是 一般賃金水準을 높임으로써 인프레壓力을 造成할수도 있다.

以上과 같은 原因에 依하여 誘發되는 인프레는 超過需要를 除去하는 方法에 依하여 防止할수는 없다. 萬一 與信力의 抑制 또는 財政的 措置에 依하여 總支出을 削減함으로써 그러한 인프레壓力을 除去하고자 할 때에는 雇傭減少만이 아니라 有用한 生産物의 生産을 萎縮시키는 結果가 いたり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種類의 인프레를 抑制하기 爲해서는 價格 및 賃金を 直接 規制하는 手段이 効果的인 對策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萬一 그러한 直接統制가 要望되지 않는 것이라면 生産 및 流通過程에 있어서의 業者의 價格引上 或은 勞組의 賃金引上에 對한 自製만이 그러한 인프레의 造成을 防止할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安定基調위의 成長>

인프레의 基本的原因이 超過需要에 있다고 생각하는 立場에서는 超過需要의 除去가 가장 合理的인 인프레對策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必需品의 供給不足에 起因하는 價格上昇이나

過剩利潤을 일기위한 價格引上에 起因하는 인플레이現象은 財政支出의 削減이나 或은 與信量의 制限에 依하여 防止할수는 없다. 더욱이 超過需要의 削減이 需要不足을 發生시키면 디플레이的作用이 強化되고 價格이 上昇하는 同時에 經濟的沈滯現象이 強化된다. 그러한 經濟的不調整에 対処하기 爲해서는 인플레이의 原因이 多元의 이라는 點을 認識하고 價格上昇을 誘發시킨 諸要因에 對한 多面的對策을 遂行할것이 要求되고 있다. 緊縮的 財政 및 金融政策은 그自体가 目的은 아니고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政策은 伸縮의 性格을 見備해야 하며 그러한 點에서 財政的措置보다 金融的統制가 더욱要望되고 있다. 또 超過需要에 起因하지 않는 그만큼의 原因 이라면 供給物資의 不足이나 不當한 利潤動機에 支配되는 價格引上의 要求等에 對해서는 各其 該路를 打開하거나 또는 直接的統制에 依存할수 밖에 없다. 이러한 一聯의 措置와 함께 特別히 強調되어야 할 것은 價格安定을 爲하여 投資 및 投資意欲을 抑制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價格水準의 安定은 長期的政策目標의 하나이며 通貨量의 調節 및 金融部內의 與信統制 或은 財政支出의 削減은 長期的 經濟進歩의 諸目標과 分離시켜 생각 할수는 없다. 萬一 價格水準의 安定이 成長을 犧牲한 結果로 이루어 진다면 그러한 安定的條件은 長期間 持續될수는 없다.

흔히 經濟의 安定化와 經濟의 成長은 兩立할수 없는 政策目標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長期的觀點에서는 그러한 矛盾이 있을수가 없다. 經濟의 安定化와 經濟의 成長은 同時에 이룩되어야 하며 그러한 成果를 거두기 爲해서는 價格水準의 安定이 雇傭減少와 縮小生産을 誘發시켜서는 안된다. 또 인플레이壓力下에

多數의 消費者의 犧牲에 依하여 少數人의 利益을 增加시켜서
는 안된다. 卽 인플레이와 經濟沈滯의 二重負擔을 加重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의 原因이 多元的인 以上 그 對策도
多面的이어야 하지만 安定基調위에서 成長을 이룩할수 있는 可能
性은 主로 政府의 力量에 依存한다는 것을 否認할수 없다.
왜냐하면 人플레이는 단지 緊縮的 財政. 金融政策에 依하여 解決
할수 있는 經濟的不調整은 아니며 當面한 經濟問題에 對한 短
期的. 長期的考慮와 함께 事情에 따라서는 自由經濟制度를 維
持하기 爲한 直接的統制를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